

# 익산 소재유망기업, 본격 가동

### 트라이스톤코리아 외국인투자지역에 준공

익산시에 소재유망기업이 동지를 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희귀금속제조업체 트라이스톤 코리아(대표 오준표)는 익산제3일반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에 제1공장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주)트라이스톤코리아 오준표 대표, 정봉진 전무를 비롯해 김형훈 경제관광국장 등 지역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트라이스톤코리아의 첫 출발을 축하했다.

트라이스톤코리아는 스테인레스강

제조에 필수적인 희귀금속인 페로크롬을 생산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전 세계 수요가 2,000만톤(약 30억 달러)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해 이번 공장가동으로 세계시장을 공략한다.

이번 공장 준공으로 연간 1만2000톤 생산 및 판매를 목표로 7월 중순부터 양산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오준표 대표는 "트라이스톤 코리아에 보여준 지역사회의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트라이스톤 코리아도 고용 창출 등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



라 밝혔다.

한편 트라이스톤코리아는 지난 2020년 3월에 투자협약 및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익산제3일반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 2만5,501㎡ 부지에 78억원 투자해 페로크롬 공장을 준공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가 전국 최고 수준의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건강을 지킨다

## “건강 형평성 개선에 최선을”

### 익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전국 최우수 지자체 선정

익산시가 전국 최고 수준의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건강을 지킨다.

시는 지난 7일 서울 더케이 컨벤션센터에서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지방자치단체 합동 성과대회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평가' 부문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4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평가는 계획의 적절성, 포괄성, 목표설정 타당성, 계획 수립 노력도,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 10가지 항목으로 진행됐다.

시는 전라과 추진과제를 논리성 있게 도출하고 부서 간 연계·협력을 통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의 노력을 인정받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합일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및 서부권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확충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접근성을 향상시켰고, 1인 17구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여 재난 발생 시 대응 능력을 제고했다.

또한 저출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난임부부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에 자체 예산을 편성으로 전 세대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건강 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이진운 보건소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밀도 있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완성하기 위해 지난 8개월간 주민 요구도 조사와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계획을 마련했다"면서 "계획된 사업을 충실하게 진행해 건강 형평성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 “산단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하라”

### 환경보존군산시의원, 5분 발언



군산시의회 환경보존 의원은 7월 제2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산단단지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한경봉 의원은 "재민금 및 군산 국가산업단지 내 입주업체 가운데는 대기오염물질 및 폐수 배출시설들이 상당하여 인근 비응도동, 오식도동, 소룡동 내초동에 거주하는 1만7,000여 군산시민들의 환경오염 피해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재민금·군산·군산국가산단과 군산일반산단 등 총 4개 산단에는 대기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42개소, 수질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7개소, 대기와 수질 오염물질 복합배출사업장 145개소 등 총 334개소의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있다"고 했다.

이어 "산단을 포함한 인근 지역에는

사업장 내 자가소각시설을 포함하여 폐기물 소각시설 7개소, 폐기물 매립시설 2개소가 있는 가운데 2022년 한 해에만 총 40만 3천 톤의 폐기물이 소각되거나 매립되었다"며 "최근까지도 반복되고 있는 산단 내 화학물질 누출 사고는 지역 주민들을 그야말로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 지난 2016년 오식도동 주민들이 건물 옥상에 쌓여 있던 분진을 채취해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납 성분이 기준치의 15배가 넘게 검출돼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며 "주민들은 각종 호흡기 질환과 아토피 등 피부병에 시달리고 심지어 암 환자까지 늘어나면서 건강 문제를 발생시킨 원인으로는 인근의 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폐기물 처리시설을 의심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주민들은 수시로 내뿜는 연기 와 악취에 수년째 군산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군산시는 제대로 된 환경오염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그나마 2020년에 한 차례 실시한 산단단지 환경오염 조사에서도 대기질만 조사하는데 그쳤다"고 꼬집었다.

또한 "당시 전문가와 언론은 공기 중에 희석돼 농도가 낮아질 수 있는 대기오염도만 측정할 게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 공간에 쌓여 있는 분진과 토양오염조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군산시는 이를 조사 항목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중금속이 몸 안에 쌓여 있는지를 검사하는 항목조차 없었다"며 "지금까지도 민원을 제기하는 산단 인근 주민들의 알 발생률이 관내 다른 지역과 비교해 어떤지, 그 현황 파악조차 안하고 있는 군산시의 무관심과 무능함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산시가 산업단지 인근 주민들과 적극 협의하여 전복도에 건강영향조사를 청원하기를 제안한다"며 "건강영향조사는 환경 및 건강 자료조사, 환경유해인자의 노출평가, 질병발생률 비교·분석 등 건강위험분석, 건강영향평가를 포함하고 있어 산단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건강이 위태로워진 원인을 파악하고 향후 대책을 세우는 데 반드시 필요한 조사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 군산시보건소, 지자체 합동 성과대회 장관 표창

군산시보건소는 제15회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종합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7월 2023년 지방자치단체 합동 성과대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및 지역보건의료계획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합동 성과대회를 주최하고 있다.

종합부문의 경우 2023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에 대한 시도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시도별 시군구 수 등을 고려해 우수 지자체를 선발했으며 군산시보건소는 우수기관에 선정

됐다.

군산은 최근 5년 간 건강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현재의 주요 건강문제를 신뢰성 있는 자료 및 지표로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사업의 필요성 및 방향을 매우 우수하게 기술했으며, 핵심성과지표가 적절하게 선정됐다는 점 등에서 높은 평을 받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서를 토대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 군산시, 2023년 인구의 날 기념행사 개최

군산시는 7월 11일 세계인구의 날을 기념해 8일 전북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에서 인구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계인구의 날은 1987년 UN의 주도로 인구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제정됐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11년에 지정된 바 있다.

이날 행사는 인구의 날 기념식을 시작으로 △인구의 날, 도전 골든벨스 트레스 검사 및 마음 힐링 카페, △아미와 아빠가 함께하는 쿠킹 클래스,

△여성 경력 잇기 캠페인 커피차, △퍼스널 컬러 진단 등 다양한 체험과 함께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마련돼 가족 단위로 참여한 시민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했다.

시는 사전 참가 신청을 통해 200여 명을 모집했으며 특히, 신청 하루 만에 접수가 마감될 정도로 시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군산=김판곤 기자

##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

### 지역 소식통

#### 익산 'NS FoodFesta' 서 지역 맛집 발굴 나서

국내 최대 규모 식문화축제 'NS 푸드페스타'가 지역 맛집 경연 발굴에 나섰다.

익산시는 'NS 푸드페스타'에서 로컬맛집 발굴 및 관광자원 육성을 위한 특별 경연 부문인 미식식당전에 참가할 지역 외식업체를 1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NS 푸드페스타는 2008년부터 서울 양재AT센터에서 개최해온 국내 최대 규모의 요리경연으로 지난해부터 익산에서 개최, 익산시·NS홈쇼핑이 공동주관하는 식문화축제이다.

익산 미식당전 참가지역은 익산에서 1년 이상 영업 중인 일반음식점 영업자로 팀 대표자 1명, 팀원1명 총 2명으로 구성하, 익산 지역 대표 식재료를 활용한 요리를 판매 중인 음식점이다. 프랜차이즈 음식점은 제외된다.

#### 익산시, '다이어로움·지역공동체 일자리' 모집

익산시는 경제적 위기에 처한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2023년 하반기 다이어로움 일자리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체육시설, 환경정비 등 분야에 다이어로움 일자리 248명, 지역공동체 일자리 25명을 선발하여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근무하게 된다.

다이어로움 일자리는 하루 4시간 산단단지, 체육시설, 공원 및 녹지, 읍면동 등에서 일하게 된다.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하루 5시간 다문화 지원사업, 지역 녹지 정화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참여자적은 다이어로움 일자리의 경우 접수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 만 64세, 지역공동체 일자리의 경우 만 18세 이상이며 근로 능력이 있는 익산시민으로 신청자의 재산 소득 기타 자격정보를 심사하여 채용한다.

모집 기간은 7월 10일부터 7월 14일까지이며 참여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익산=이재춘 기자